

왼손도 모르는 구제

The Giving Even My Left Hand Does Not Know

마태복음 6:1-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0월 9일 설교

¹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²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³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⁴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부 소식

얼마 전에 한국 신문을 보니 “가수 아무개 은밀한 기부 소식 훈훈”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부를 은밀하게 했는데 어떻게 훈훈한 소식이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느 가수가 몰래 기부를 했는데 그게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연예인을 두고 쓴 비슷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뒤늦게 알려졌다고 뭐 죽은 다음 알려졌다거나 수습 해 뒤에 알려졌다는 게 아니고 보통 한두 주, 길어도 한두 달 지나면 알려집니다. 몰래 한 선행인데 신문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또 궁금하지요? 그 가수가 소속된 소속사에서 홍보자료를 돌렸습니다. 누가 두 주 전에 무슨 기부를 몰래 했다. 남들 보는 데서 기부를 하면 자랑한다고 뭐라 하니깐 일단 조용히 해 놓고 적당한 때에 발표를 합니다. 몰래 했다는 말은 작전상 기부할 당시에는 소문을 안 냈다는 뜻입니다.

가수 같은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수니까 노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외모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따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인간성까지 좋아야 인기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데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드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걸로 하는데 가장 편찮은 게 기부하는 겁니다. 인기가수니까 돈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생색을 내고 나중에 홍보를 해서 인기를 더 얻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한 영수증도 잘 챙겨 놓고 또 나중에 홍보자료에 넣어야 되니까 사진도 몇 장 잘 찍어 놓습니다.

이거 기부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부가 뭐니까? 나는 있는데 남은 걸 나누어주면 그게 기쁨이다. 누구나 더 갖고 싶어 하는 세상이지만 좋은 걸 혼자만 갖고 있는 건 안 좋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나눌 줄도 안다 하고 생색을 냅니다.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갔으니까 기부 맞습니다. 기부했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아니든 떠벌린다고 비난을 하든 기부는 기부입니다.

나팔 불며 하는 구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 가운데서도 구제,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처럼 가진 것 없고 힘도 약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덕 가운데서도 가장 큰 덕이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한 중요한 방법이 구제였습니다 (신 6:5).

당시 율법을 보면 구제는 은밀해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구제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곡식을 벨 때나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혹은 빠뜨린 게 있어도 다시 베거나 따지 말고 그냥 두라 하셨는데 (신 24:19-21)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와서 아무도 모르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무상급식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부자 학생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하는 방법을 두고 된다 안 된다 싸움을 하는데 이 미국처럼 가난한 학생만 하면 될 것을 왜 부자까지 넣어서 싸움을 하나 싶었더니 가난한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하니깐 이름이 공개가 되어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 하는 수 없이 전부 다 한다고 합니다. 그것 하나도 비밀로 못 합니까?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무렵에는 공납금을 못 내 매를 맞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밥은 공짜로 주면서 상처도 같이 주니 서너다섯 해 사이에 돈은 많아진 것 같은데 정신은 하나도 못 자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교회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키는 시늉은 했

겠지요. 그렇지만 드러내고 싶어서 편법을 썼는데 어떤 편법인가 하면 구제를 하되 꼭 회당이나 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유는 그럴 듯합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해야 가난한 사람이 쉽게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제품을 받아야 합니다. 즐거운 경험이 아니지요. 게다가 구제하는 나를 사람들이 다 봅니다. 사실 주님은 이게 더 문제라 하십니다. 나팔을 분다 하셨는데 구제할 때 정말로 나팔을 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예수님의 수사법입니다. 비유법이지요. 당시 나팔은 파수꾼이 온 성 사람을 다 깨울 때 쓰던 나팔입니다. 소리가 엄청납니다. 아무리 입 다물고 구제를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구제하는 건 나 좀 봐 주시오 하고 나팔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구제와 위선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 부르십니다. 위선자가 누구니까? 명심보감의 위선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선자는 선을 거짓 꾸미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 겉이 나쁘고 속이 좋은 경우는 위선자라 하지 않고 겉은 좋은 것 같은데 속이 나쁜 경우, 그러니까 악을 선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 나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니 우리도 다 상당한 위선을 갖추고 있지만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다는 건 그런 평균을 훨씬 넘었다는 말이겠지요.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내 것을 남 주는 거니까 일종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는 뜻, 의도가 안 좋습니다. 좋은 뜻이라면 구제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 배려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구제를 하겠다 하니 구제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대신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무슨 배려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만 챙기고 있으니 위선이지요? 또 겉으로는 좋은 행동을 하지만 속에는 세상 허영을 숨기고 있으니 위선입니다. 게다가 구제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받고 싶어 하면서 겉으로는 주는 척하니 위선이지요.

연예인처럼 은밀하게 구제할 때 사진도 찍어놓고 나중에 소속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건 차라리 솔직하기나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탤런트 아무개가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했더라 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 서로 짜고 하는 일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구제하던 사람은 연예기획사가 아직 없어 그랬는지 구제를 빙자해 철저한 위선의 죄를 지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눈에 띈다고 무조건 위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구제 많이 한다고 소문까지 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행 10:2). 구제를 하도 많이 했으니 사람들 눈에도 띄고 소문도 났겠지요. 문제는 어떤 의도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런 사람은 위선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이웃과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위선자라는 독설을 듣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못 받습니다.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하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위선자가 왜 이 상을 못 받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 관계만 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 관계는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선으로 구제하던 사람들은 사람만 보았습니다. 구제 받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대신 내 구제 행위를 보고 칭찬해 줄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나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구제니까 사람만 본 게 뭐가 잘못이나 할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제라는 행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사 1:17).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약 1:27)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의”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행동입니다. 뭐가 옳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 가운데 참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였습니다 (겔 18:5-9; 약 1:27).

내가 남을 구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출

24:18; 22:27). 머물 곳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전에 나그네였던 나를 잘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 22:21; 신 10:19). 산상수훈 조금 뒤에 나오는 황금률입니다 (마 7:12). 내가 이웃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관계를 알아야 나와 이웃 사이의 수평관계도 가능한 게 구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게 바로 구제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탐욕이라는 게 있고 또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빈부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국가나 제도를 만드시고 또 서로 돕는 문화도 만드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좋은 것인 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연예인들처럼 또 엄청난 부자나 정치가들처럼 인기를 위해서라도 구제를 함으로써 그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홍보자료를 돌리더라도 구제를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부, 그런 구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제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상은 못 받는 구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의하라 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주는 상을 받아버리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상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을 받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라니 좀 이상하지요? 조금 전에 구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제하셨다는 걸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 나도 이웃을 구제하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뭔가 바라고 구제를 한다면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구제하는 위선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으로 돕는 척하면서 나도 속으로 하나님한테 뭘 바라는지 마친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선자들처럼 우리도 뭔가 기대하는데 우리가 위선자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대하라 하신,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구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위선자들은 다른 이유로도 위선자가 되지만 이들이 위선자가 된 진짜 이유는 겉으로는 구제를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이 주는 상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제를 본 뜻에 맞게 하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히 11:6). 이걸 믿으면 구제를 통해 믿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뭘니까?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직접 갚아 주신다 했습니다 (잠 19:17).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 갚아 주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백 불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키워 돌려주십니까? 그런 건 구제가 아니라 저축이고 투자겠지요? 그건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돈 갚아주시는 게 상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만 그건 바알 우상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상이라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잠시 말씀드린 답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남모르게 행한 구제를 갚아 주시는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구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자,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인 것 아십니까? 연예인처럼 기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만장자나 정치꾼들처럼 인기를 사려고 돈을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나 고마운데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제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보니 그 어려운 처지가 어찌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살피주신 내 어려움하고 똑같은지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 58:10). 나도 사람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누리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습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내 놓은 구제헌금을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부릅니다 (고후 8:1-2).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은혜가 구제로 확인되었다는 말이지요. 구제를 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강해집니다 (요일 3:18-19).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구원이니까 처음 주신 은혜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 “저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시 112:9).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곧 의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가장 큰 상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딤후 6:18-19). 좀 분명해졌습니까?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게 만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구제

사람이 주는 상은 절대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꼭 하나,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제삼자가 모르게 해야 됩니다. 주는 나와 받는 너만 있으면 되지 구경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어서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황동규 시인이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나팔을 보면 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혹 한 사람이라도 알면 괜히 뿌듯해지고 내가 나팔은 차마 못 불지만 그 사람이 대신 나팔을 좀 불어주기를 은근히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상을 이미 받아 버렸습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밀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진짜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삼자뿐 아니라 나에게 구제를 받는 그 사람에게도 비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귀에도 나팔을 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선은 나를 위해서 모르게 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 본인을 위해서도 모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한 건지 안다면 구제해준 그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고맙겠지요. 사랑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했는지 모른다면 사람이 고마운 대신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 가슴은 뜨거운데 누군지 모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웃도 모르고 내 구제를 받는 사람도 모른다면 완벽한 비밀이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 왼손 다 내 손인데 어떻게 한 손이 하는 걸 다른 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라고 주님이 과장법을 쓰신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법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웃과 상대방뿐 아니라 너 자신조차 모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 하느냐” (마 5:47)?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심지어 내가 구제하는 이 재물 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전 4:7)?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구제한다고, 다시 말해 내 것을 남에게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구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 구제만이 사실 참 구제요 하나님은 그런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른 구제를 위하여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남들 하는 대로 흉내만 내면, 헛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 세계 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썩어 없어질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 그 엄청난 상은 놓치고 맙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구제나 기부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하려면 그런 전략도 좀 써야 될지 모르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내어 주어도 사랑이 아니라면 다 헛일이라 했습니다 (고전 13:3).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하겠습니까? 일단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는데 뭘 조심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실천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하는 사람은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구제를 잘 하는 기관에 돈을 보내도 되고 교회를 통해 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실천하면서 제대로 하는지 은밀하게 하는지 따져 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죄에 물든 우리,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침입니다. 모르게 해야 됩니다. 구호 기관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호 기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자면 IRS 사람도 알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랑 나는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내가 나팔을 불어도 거기까지는 안 들릴 겁니다. 구제현금을 교회에 낼 경우에는 이름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지요.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는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나팔을 안 불어도 고넬료처럼 소문이 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나팔을 안 불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가 안 난다고 저 사람은 왜 구제를 안 할까 그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는 구제가 참 구제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의심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뜻을 하늘에 두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삶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니까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것에 수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제할 때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 성령을 주실 때 함께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하겠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롬 5:5).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예인이 하는 기부랑 우리가 하는 구제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말고 이 엄청난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삶을 더욱 잘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됩시다. (권수경 목사)